

보성 삼베 연구

고 부 자[†]

단국대학교 대학원 전통의상학과 교수

Research on Hemp Fabrics Produced at Boseong

Bou-Ja Koh[†]

Professor, Dept. of Traditional Costume, Graduate School of Dankook University

(2003. 12. 26. 접수 : 2004. 1. 16. 채택)

Abstract

This research on the present state of production and circulation of *boseong-sambae*, based on the materials, has been collected and arranged through the survey for one year, 2003. *Boseong-sambae*, the hemp fabric produced at Boseong, hold 35% of nationwide production volume and 50% of circulation volume. The products of hemp include hemp fabrics, shroud, contemporary Korean dresses and other household articles. Dried hemp skin, hemp thread and hemp fabrics are traded at the fair held in every five days, mostly by direct transactions which is trusted between the producers and consumers. A bolt of *boseong-sambae* includes 20 *ja* (a Korean foot, 60cm in length) of hemp fabrics in breadth of 35cm. The price of a bolt is approximately 2~3 hundred thousand won. They are endeavoring to revive hemp fabric that the image was lost due to the cheap and coarse fabrics woven with Chinese thread since the latter half of 1990's. The advanced countries have invested positively in this business because hemp is an environment friendly material. Thus, a strong national support is demanded in this field facing a crisis due to the inundating of coarse hemp products from China, and the aging problem of the initiate, the reason of the discontinuation of the inherited technique. Through this research understanding the present station and the problem of hemp production, the future research will be followed expecting the Renaissance of the Korean traditional hemp fabrics.

Key words: *Bosungbe*(보성베), *Chinesebe*(중국베), *sambe*(삼베), *samgut*(삼gut), *shroud*(수의).

I. 서론

현재 전라남도 보성에서 생산되는 '보성삼베'의 생산과 유통현황을 민속학적 조사에 의해 정리·분석한 것이다. 2003년 2월부터 12월말까지 여섯 차례 방문으로 현장상황과 개별 면담 내용을 정리한 것이

며, 제보자는 19명으로 현재 보성에 거주하는 사람이거나 나이가 많고(1918년~1950년생), 삼[麻]일에 대한 경험자들이다<부록. 제보자인적사항 참조>. 필요한 부분은 기존연구 내용도 첨가시켰다.

삼베[大麻]는 1990년대 이후 中國産이 들어와 '값이 싸다'는 이유로, 또한 '最上의 壽衣用品'이라는 의식이 확산되면서 중국산은 需要의 호황기를 맞이하

본 연구는 2002년도 단국대학교 교내 연구비 지원으로 연구되었음.

[†] 교신저자 E-mail : koh305@hanmail.net

였다. 따라서 국내에서 재배한 대마실[大麻絲]로 생산된 삼베(이하 國産이라고 한다)는 경쟁력을 잃고 ‘衣類植民地化’라는 상황까지 초래하게 되었다. 다행히 가격과 품질의 眞否를 경험한 소비자층에서 다시 國産에 대한 인식이 되살아나기 시작하고 있다.

현재 우리 나라에서 삼베생산은 강원도와 전라·경상도 일부에서 명백을 유지하고 있는 정도이며, 품질은 安東布(생냉이)를 제외하고 粗惡한 반면 高價이기 때문에 경쟁력을 잃고 있다. 특히 생산자의 의식과 老齡化에 따른 기술단절 위기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범람하고 있는 중국산에 대한 대응책이나, 전통삼베의 기능전수와 계승발전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내야 할 막중한 시기에 처해 있다. 삼베는 최상의 靚環境소재이다. 일본에서는 1999년부터 “의료대마를 생각하는 모임”을 만들고 會報를 계속 내고 있으며¹⁾, 대마에 대한 질문서²⁾까지 만들어 내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현실을 직감하고 대책을 찾기 위한 첫 시작이며, 이는 앞으로 각 지역에 대한 우리나라 삼베연구의 현황조사와 함께 계속됨을 전제료 한다.

II. 보성삼베³⁾

1. 보성의 역사와 환경

1) 역사

보성은 득량면 비봉리 선소 해안 일대 3km에 걸쳐 1억년전 공룡알 화석지가 발견됨으로써 한반도에도 육식공룡이 존재했던 자연지리의 세계적인 보고로 가치를 인정받게 되었다. 또한 사람이 살기 시작한 것은 구석기시대이며, 청동기시대의 지식묘가 201개 군집에 1,606기에 달한다. 철기시대 貝塚과 주거지 유물과 삼국시대 무덤으로 石室도 있다.⁴⁾

三國시대에는 馬韓지역이었으나 백제에 병합되어

夫忽, 통일신라 景德王 16年(757) 寶城郡으로 개칭, 고려 成宗(995년) 때는 貝州(別號로 山陽)로 하였다가 顯宗(1018년)때 다시 보성군이 되었다. 조선시대와 일제강점기까지 개편이 잦았으며, 1998년 현재 행정구역은 2읍 10면 126개 法定里와 693개 자연부락으로 이루어져 있다.

2) 환경⁵⁾

(1) 지형

地形은 전라남도 남부에 위치하여 북으로부터 서남방에 이르는 경계는 高地帶로서 화순·장흥·고흥·순천시와 접계를 이루었고, 남방은 회천·득량·조성·벌교의 4개 읍면이 해안에 둘러 있으며 남해안 일부를 제외하고는 거의 산간지대로 이루어져 있어 완만한 평야는 없다.

山岳은 호남에서 남원시 운봉읍 다음가는 고지대에 위치하고 있는데 500m 이상이 6개 있으며, 제암산은 807m로 가장 높다.

河川은 보성강이 있으며 섬진강 상류로 발원지이며, 1990년 4월 담수가 시작된 주암댐 건설로 인하여 4개면 19개리 34마을에 9.1km²가 水沒로 새로운 호반이 조성되어 관광자원과 하천이 농업에 이용되고 있다.

(2) 인구 및 면적

인구는 1960년대 이후 조금씩의 增減이 있다가 1990년대 감속속도가 빨라지며 2001년말 현재 22,826세대에 59,526명이며, 인구밀도 89.73명, 면적은 663.36km²이다.

2. 삼베 현황

보성에서 생산되는 베는 마사베, 기동베, 나이롱베, 중국베, 보성베(전삼베) 등 여러 종류가 있다. 이는 실의 混紡형태와 실의 생산지에 따라 붙여진 명

1) 医療大麻老をえる會, Japan Medical Marijuana Association Vol. 1(1999).

2) 赤星榮志, ヘンプがわかる55の質問 ~ヘンプ(大麻)の基礎知識~(日本麻協會, 2000).

3) 보성에서 짠 베를 보성 사람들은 “전삼베”라고 한다. 여기서 “전”은 씨실과 날실이 모두 보성에서 생산된 삼실로 짠 “완전한 것(全)”, “진짜 것(眞)”임을 상징하는 말이다.

4) 김정철, “보성강유역의 선사문화,” *계간 大東文化* 20호(2001), pp. 28-33.

5) 보성군, 보성통계연보 제42회(2002), pp. 31-32.

칭이다. 마사베는 모두 중국산 모시 실로 짠 것, 기등베는 중국산 날실에 씨실은 보성산으로 짠 것, 나이롱베는 날은 무명에 씨실은 보성산으로 짠 것, 중국베는 중국산 삼실로 짠 것, 보성베는 모두 보성에서 만든 삼실로 짠 것을 말한다. 보성베 외에 다른 것들은 모두 서울이나 서울·대구·부산 등지로 상인에 의해 팔려나간다. 따라서 보성베는 이런 제품과 섞이기를 꺼려하여 시장유통이 거의 되지 않았으며 많이 쓰일 때는 주문을 다 델 수가 없었다.

그러나 보성에서도 1990년대부터 중국산 삼베 외에 靸皮와 실타래까지 들어와 생산하고 판매하면서 품질 저하로 인하여 신뢰도를 잃기 시작하였다.

1) 연혁 및 현황

보성 삼베는 北布나 安東布·江布처럼 기록에 나오는 자료는 없다. 따라서 기본적인 피복거리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생산되었던 자급자족 형태였던 것 같다. 근래 보성의 삼베에 대한 기록에서 삼[麻]은 1902년 土産에서 衣類거리로는 苧·棉花,⁶⁾ 또 1929년에는 棉, 苧⁷⁾와 함께 나와 있다. 1914년 特用作物에서 大麻와 棉花가 많이 생산되고, 麻織物로 移出된다. 1914년 農産物 移出入構造를 보면 移出로는 玄米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세번째로 마포가 나타나고 있다.⁸⁾ 광복을 전후하여 보성군내의 11개 정기시장 가운데 유명한 시장으로는 마포베 시장이 서는 곳은 보성장과 복내장이었다. 보성장은 2일과 7일에 열리며, 지금도 전국에서 제일 큰 마포베 시장이 새벽 일찍 서고 있으며 하룻장에 최고 2천 여 필이 거래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⁹⁾

그러나 점차 마포는 亾服이나 喪服用으로 이용될 뿐이며, 1975년부터는 삼栽培도 허가제가 되면서 농민들이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대마에 대한 통계수치도 1976년 이후 統計年報에서 제외되고 있다.¹⁰⁾

근래에 와서 '보성의 특산명물'로 삼베생산 및 유통 등에 대하여 보고되고 있다. 이에 의하면 삼베는 전래의 특산명물로 龍紋席·瓊器·鎗器과 함께 들어 있으며, 이 중에서 삼베는 현재 전국 생산량의 35%와 유통량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차(茶)와 함께 보성의 얼굴 상품이 되어 있다. 또한 대마의 재배능가는 약 1,000호이며, 보성의 북부지역인 복내·분덕·윤어·결백면 등이 주산지이며 가공은 복내의 이찬식 씨가 운영하는 보성삼베당단지, 보성읍에서 윤옥돌 씨가 운영하는 보성삼베특산단지, 문기호씨가 운영하는 득량마포단지 등이 있다.¹¹⁾

대마재배는 1998년도까지도 농가에서는 쌀과 보리 다음으로 주 소득원이 되었다. 그러나 그후 차츰 줄어들어서 2001~2003년 사이에는 큰 변화가 없다(표 1).

한편 보성군이 주력하고 있는 녹차 생산과 비교하여 보면 1997년부터 2001년 사이에 녹차 생산은 상승하지만, 대마는 점차 줄어들고 있다(표 2). 그러나 2002년부터는 다시 증가하여 2002년에는 386농가에서 31ha, 2003년에는 297농가에서 35.5ha에 재배하였다.¹²⁾ 이는 중국삼베가 우리 것에 비해 "좋지 않다"고 판명되면서 국산삼베와 더불어 보성삼베의 품질이 재인식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베틀 보유량은 2002년 3월 현재 보성군에 舊形은 37대, 改良形은 193대이다.¹³⁾

구형은 나무로 만든 제래식 織機를 말하며, 사용하지 않을 때는 베틀을 풀어서 두었다가 필요하면 다시 맨다. 베짜기는 주로 밤이나 농한기에 방 안에서 하기 때문에 구형은 필요하지 않을 때는 풀어서 둘 수 있어서 합리적이다. 계량형(그림 1)은 바디 등 부분적으로 쇠를 사용한 것으로 1900년대 중반부터 보급되었다. 구형에 비해 생산량은 우수하나 필요치 않을 때도 설치해 두어야 하므로 공간을 넓게 차지한다.

6) 『山陽誌』影印本(壬寅本) 卷一, 土産.

7) 『朝鮮崑輿勝覽』影印本.

8) 寶城郡史編纂委員會, 寶城郡史(寶城郡史編纂委員會, 1995), pp. 633-634.

9) *Ibid.*, pp. 790-793.

10) *Ibid.*, pp. 755-758.

11) 송봉석, "보성의 특산명물," *계간 大東文化* 20호(2001), pp. 82-84.

12) 2002년 12월말. 보성군청 농산과 특용작물계 제보

13) 이찬식 제보(2002. 3.12) "보성대마(삼베) 활성화 방안," 군 보고 요지 참조.

<표 1> 특용작물 대마 생산량 조사현황¹⁴⁾

구분	재배년도	재배농가수	전체재배면적(ha)	수확면적 (ha)	10a당 수량 (kg)	생산량 (MT)
계	2001	252	24.5	24.5	168.0	41.2
	2002	306	31.00	31.00	171.0	44.40
	2003	298	36.5	35.6	124	44
노동	2001	15	0.5	0.5	180	0.9
	2002	22	1.10	1.10	180	2.00
	2003	21	1.2	1.2	120	1.4
미력	2001	50	5.1	5.1	160	8.2
	2002	52	5.80	5.80	201	11.60
	2003	62	7.6	7.6	125	9.5
검백	2001	88	8.5	8.5	160	13.6
	2002	99	10.40	10.40	151	15.70
	2003	90	10.8	10.8	110	11.8
올어	2001	52	5.5	5.5	180	9.9
	2002	74	6.00	6.80	100	6.80
	2003	77	7.3	7.3	130	9.4
복내	2001	34	4.0	4.0	180	7.2
	2002	46	6.00	6.00	120	1.10
	2003	42	8.3	8.3	135	11.2
문덕	2001	10	0.7	0.7	180	1.2
	2002	12	0.90	0.90	130	1.10
	2003	6	0.5	0.5	140	0.7
조성	2001	1	0.1	0.1	160	0.1
	2002	1	0.06	0.06	120	0.02
	2003	-	-	-	-	-
응치	2001	2	0.1	0.1	160	0.1
	2002	-	-	-	-	-
	2003	-	-	-	-	-

* 보성읍·별교읍·회천면은 3년 동안 보고사항이 없음.

<표 2> 보성군 녹차·대마생산량¹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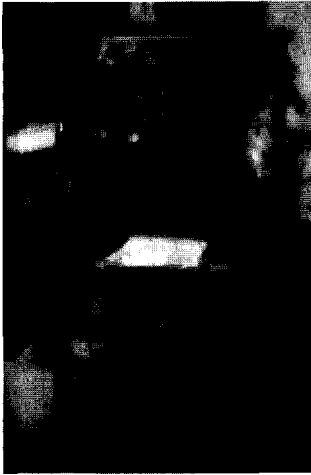
(단위:ha, 톤)

구분	연도별	1997	1998	1999	2000	2001
	녹차	면적	336.9	346.9	393.9	428
생산량		505	520	500	642	691
대마	면적	120	98	99.8	39.5	24.5
	생산량	216	176	180	71	44

14) 보성군 농산과 51222-10007(2002년 1월 2일), 51221-13049(2002년 12월 7일)문서.

보성군 농산과 -5(2003년 12월 8일)문서.

15) 보성군, *Op cit.*, p. 87.



〈그림 1〉 베틀(개량형).

2) 중국산 생산 실태

“중국산”이라 함은 보성사람들이 말하는 “전삼베”를 제외한 것으로 보성에서 생산한 삼실 외에 중국산 모시나 무명실로 짠 것들을 말한다. 따라서 보성군내에서도 지역마다 삼베생산량이나 품질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중국베의 생산은 20여년이 넘고 있다고 하는데 현황을 몇 사람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안육남은 “친정은 봉산리이다. 거기서는 모시베·미영베·명주베를 많이 했는데, 이곳에 오니까 삼베만 역세게 많이 하고 있었다. 이제는 안 하지만, 3~4년 전에는 아사베(마사베)만 짰다. 장사가 중국서 온 실을 가지고 와서 상자 체로 말겨서 짰는데 돈을 많이 벌었다. 처음에는 장사꾼이 잘 하더니 돈을 적게 주고 안 사가서 장마다 큰 보파리에 가지고 가서 팔았다. 모시베도 팔고, 모시에 아사도 섞어 짰다.”

임남순은 2003년 12월 현재 중국삼베(씨날 모두 중국실)를 짜고 있고, “얼마 전까지 나이롱베를 짰는데 날은 미영(무명)이고, 씨는 모시이다. 실을 장사가 가져오거나 장에 사서 메고·날고·짜고 했는데 20년도 넘었다. 현재 한 필 값은 20,000~25,000원이다. 중국삼베도 경기도 사람이 부탁해서 몇 년 전부터 짜는데 전삼베보다 돈벌이가 더 낫다. 녀새반짜리 19자를 짜면 품값은 15,000원 받았다. 여기서 날아서 메도록 실을 가져오고, 꾸리는 중국에서 감

아온다.”

양재화는 “친정 득량에서는 삼베가 주였으며, 미영베나 명주는 조금씩 하고 모시는 안 했다. 득량은 검백보다는 갈 사는 마을이라 삼베도 고왔고, 큰 애기들은 들넛에 내보내지 않았다. 여기서는 닷새면 잘하는 것이고 주로 녀새반 정도만 한다. 제일 잘 한 것은 ‘옛새세번조시’인데 지금은 볼 수 없다. 시집 와서 옛새세번조시를 짰는데 ‘삼베하는 곳에서 와서 잘 한다’고 소문났었다. 30년쯤 전에는 옛새는 20자에 5,000원 받고, 녀새는 2,000~3,000원 받았다. 길잡하는 사람들 나이는 60세 안팎이 두 집뿐이고, 대부분 65~75세 정도이며 그 이상은 없다. 옛날엔 베 맬 때 새 수 안 놓고 댔는데 지금은 ‘닷새두번조시’나 ‘세번조시’를 놓아 곱게 짠다. 그래도 잘 안 팔린다. 전에는 ‘베전’도 컸고, 보성오일장에서 삼베 장사(“베치는 사람”이라고 한다)하는 사람이 남너 할 것 없이 많았다. 지금은 3~4인 정도 뿐이다. 이 마을에서는 ‘전삼베’를 많이 했고, 지금도 노느니 전삼베만 한다. 삼베는 여름옷으로 썼고, 특히 머슴들 ‘쇠모중이(짧은 홀바지)’를 만들어 입었다. 전에는 喪主는 삼베로 중단·치매·적삼·굴건제복을 모두 갖추었다. 지금은 노랑물들인 ‘오리메기 베’로 하는데 이것은 아사에 미영올로 짜서 짠 것이다. 삼베 한필은 40자인데 보통 20자를 한필로 치고 있으며 20자는 중우·적삼과 치매·저구리 한감씩이다. 죽을 옷을 마련하려면 지금은 중국 것으로는 300,000원이면 다한다고 한다. 보통 녀새세번저시로 하는데 제일 많이 했을 때 중국 것도 여러 필 썼다. 그러나 이제는 중국 것은 써지 않아서 안 좋다고 하니까 쓰지 않는다. 이번 달에 삼베 옛새(10년 전 짠 것) 20자에 300,000원, 닷새두번조시는 250,000원 받고 팔았다. 현재 검백면 용산1구에서 삼베 일은 80여 가구 중에서 15가구 정도 하고 있다.”

이외에도 제보자 전원이 이런 경험을 했다고 한다.

이처럼 1990년대에는 이곳에서도 가짜 생산이 성행했음을 알 수 있다. 즉 값싼 중국산 실을 들여다가 현지에서 짜기도 하고, 다른 실들을 섞어 짜거나, 중국실과 보성실을 섞어 짰던 것이다. 이런 물건들이 국내산 또는 안동포·강포·남해베·순창베·보성베 등 유명 生産地 이름을 빌려 판매되었다. 이것들은 특히 병원이나 장의사가 가장 큰 공급처가 되었

다. 2003년 삼베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¹⁶⁾에서 의하면 1990년 1월 1일부터 2003년 12월말까지 사건심의 결과 '수의 판매에 대한 부당성'이 1997년 8월부터 2002년 12월까지 17건이 나온다. 위반유형은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5건, 기만적인 표시(광고)행위 8건, 끼워팔기 1건, 허위과장 표시광고 2건, 경품류 제공에 관한 불공정 거래행위 1건이다. 이 내용은 2003년 3월 20일 제7차 회의 안건 8건 중에서도 4건이 안동삼베와 보성삼베의 부당한 표시행위와 의료원과 소비자조합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리고 있으며, 특히 모든 수의 품목에서 보성베가 들어 있다.

2000년 삼재배와 가공상황을 보면 보성군 12개 지역에서 벌교·보성·회천에서는 전혀없으며, 노동·미령·검백·복내·문덕에 집중되고 있다(표 3).

3. 보성삼베 생산과정

본 연구에서 삼씨뿌리기에서부터 삼베기와 삶기까지 작업과정은 복내면의 공동작업 상황으로 하고, 실 것 마련에서부터 피륙을 완성하기까지의 과정은 보성군 전역을 중심으로 한 것이다.

삼베 생산은 크게 삼 재배→실것 마련→짜기→후처리의 네 단계를 거친다.

특히 실것 준비과정 중에는 “삼일은 물에 열번 들어가야 한다”고 할 정도로 물과 삼일은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 실을 마련하는데도 물에 추기고, 삶고, 씻는 일을 여러 차례 반복해야 했으니 삼베일 중에서 가장 길고 고된 작업을 거치게 된다.

삼베기와 삼짜기, 꺾질벗기기 내용은 2003년 6월 2~3일과 10~11일 현황 상황이다.

1) 삼[大麻] 재배

삼재배는 施肥→삼씨뿌리기→삼베기(삼걷기)까지 크게 삼단계의 과정을 거친다. 그 사이에 쉼어주기

<표 3> 삼 재배 및 가공가능 현황¹⁷⁾

읍면	리별	2001. 재배의향조사		실 것 생산		전삼베 생산		수입산 마사베 생산	
		농가수 (호)	면적 (평)	농가수 (호)	생산량 (kg)	농가수 (호)	생산량 (필)	농가수 (호)	생산량 (필)
계	75	361	135,157	325	8,951	120	10,313	74	12,892
보성읍	-	8	1,500	21	240	21	6,840	-	-
벌교읍	2	-	-	-	-	-	-	-	-
노동면	8	20	13,648	7	240	20	925	25	8,400
미령면	13	128	42,300	78	2,568	12	230	9	150
검백면	15	108	34,800	88	3,287	20	310	6	2,052
울어면	7	30	7,059	40	866	23	1,393	-	-
복내면	21	50	25,150	73	1,635	9	270	2	80
문덕면	3	16	10,200	16	69	8	300	15	1,700
조성면	1	1	500	-	-	-	-	-	-
특량면	2	-	-	-	-	-	-	17	510
회천면	-	-	-	-	-	-	-	-	-
웅치면	3	-	-	2	46	7	45	-	-

16) 공정거래위원회, "자료실-심결자료," (2003년 10월[2003년 10월 29일 검색]);<http://www.ftc.go.kr/>

17) 보성군(2000), 보성통계연보 제40회, 보성군.

와 옷겨름주기를 하기도 한다.

삼은 박하고 거름을 주지 않아도 잘 자라는 식물이다. 그래서 “다른 농사거리보다 衣料공급거리원과 함께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고, 또한 농한기 부업거리로 家用을 보태주는 효자 작물이었다”고 한다. 삼 재배지는 밭이나 논에서도 한다. 품질은 ‘밭삼’은 마디가 굵지만, ‘논삼’은 곧고 가늘어서 좋다. 그러나 논에 갈았을 때 모내기가 늦어지고, 또 장마가 저서 배어낼 시기를 놓치면 모가집¹⁸⁾이 서거나, 삼대가 세어서 좋은 품질을 얻을 수가 없게 된다.

(1) 삼씨뿌리기(播種)

2003년 3월 20~21일 이틀동안 북내면 ‘대마재배단지’에서 작업하는 상황에 대해 살펴보았다.

장소는 북내면 봉천리 강가에 있는 논과 밭인데 밭은 水沒畚으로 국유지이며 3,500평이다. 갈아 놓은 흙을 남성들이 고르고 씨를 뿌리면, 흙을 덮고 고르는 일은 여성들이 하였다.

(2) 삼 걷기 (베기)(그림 2)

낮으로 밀통을 잘라 베고, 대[竹]칼¹⁹⁾로 잎을 쳐낸 다음 운반한다. 이 일은 힘들고 또 단 시간에 해야 하기 때문에 남녀노소 없이 품앗이로 하였으며,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 인부를 댈 때는 현재는 일당



〈그림 2〉 삼베기, 밭치기.
(북내면 봉천리, 2003년 6월 11일)

30,000원이다.

북내면 ‘대마재배단지’에서는 2003년 6월 2~12일 까지 계속하였다.

삼대는 굵고 길이는 300cm 정도였는데 慶北 安東 것에 비해 크고 굵다.

(3) 삼 찌기(삶기)

북내면의 ‘대마재배단지’에서는 2003년 6월 5일부터 12일까지 공동으로 하였다.

삼국은 생삼을 익혀내기 위해 장치이다. 삼국은 삼밭 옆에 두 개 설치하였다. 삼찌기에는 물이 필수 조건이므로 물을 끌어올릴 수 있는 냇가 옆을 택했다. 물을 끌어올리고, 물을 끓일 발전기도 마련하였다(그림 3).

일반 개인들은 품앗이로 하는데 온 마을이 일을 끝내려면 15~20일 정도 걸린다.

북내면 ‘대마재배단지’ 삼국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그림 4).

가) 땅을 약 50cm 정도 파다.

나) 바닥에 비닐을 깔았는데 삼단이 쌓일 정도로 크게 마련하였다.

다) 바닥에 간 비닐 위에 쇠파이프를 약 40cm의 정방간격으로 설치하고 파이프 사이사이에 구멍을 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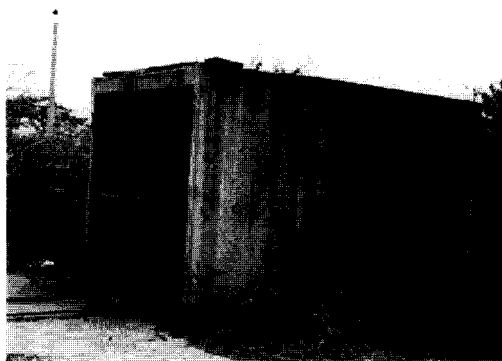
〈그림 3〉 삼국과 주변.
(북내면 봉천리, 2003년 6월 11일)

18) 삼대에 용이가 생기면 일, 용이가 생기면 좋은 삼껍질을 얻지 못하며 일이 번거롭다.

19) 솥에 쥐기에 알맞는 직경 5~6cm 정도의 대나무를 70~80cm 정도로 잘라서 손잡이 부분을 남기고 반을 쳐내고, 끝부분은 세모형으로 뾰족하게 처리한 것. 가볍고 날카로워서 삼잎을 쳐내기 매우 좋은 연장의 하나이다.



〈그림 4〉 삼굿과 삼쌈기.
(북내면 봉천리, 2003년 6월 11일)



〈그림 5〉 삼굿(콘크리트).
(미력면 용정3리 살래, 2003년 12월 12일)

라) 파이프 위에 삼대를 한 단씩 나란히 놓는데 다음 단은 가로질러 쌓고 계속 같은 방식으로 한층씩 쌓아 올린다. 삼대는 마르면 고무 찌지지 않기 때문에 쌓아가면서 물을 계속 뿌려준다.

마) 어른 키 정도까지 높이 쌓은 다음 공기가 통하지 않도록 비닐로 싸 덮고 잘 봉한다.

바) 4~5시간 정도 불을 때면 증기에 의해 찌지면서 비닐이 부풀어오르고 삼 익은 냄새가 난다.

사) 완전히 익은 것이 파악되면 비닐을 걷어내고 재빨리 운반한다. 설익으면 껍질이 잘 벗겨지지 않을 뿐더러 삼베의 질도 떨어진다. 이날 부녀회 몫으로 찢은 실익어서 다시 쪄다.

양재화는 어려서부터 겪은 삼쌈기의 변환 과정을 세 단계로 설명하고 있다.

삼굿은 물을 공급하기 쉽도록 물이 흐르는 갯가 옆에 마련하였다. 큰 때(어릴 때)는 아래에 큰돌을 얹고 그 위에 덩석을 깔고 돌맹이 구덩이에 장작불을 피웠다. 삼단을 쌓고 마지막에 덩석으로 둘러싸고 덮었다. 돌이 달구어진 다음 물을 부으면 그 증기로 익었다. 삼굿 찌는 일은 물을 빨리 내야 하고 힘이 들기 때문에 남성들이 했다.

중년에는 나무판자로 틀을 짜서 차근차근 쟁이고 멀리서 숲에 불을 넣고 끓이면 김에 익었다.

3~4년부터 콘크리트로 집(그림 5)을 짓고 삼을 집어넣어서 아래서 불을 때어 찌내기도 하였다. 삼단을 50~100다발 올려놓고 비닐로 겹을 싸매고 기름 보일러로 불을 땀다. 삼굿까지 레일로 밀어 넣어 쪄다.



〈그림 6〉 삼껍질 벗기기.
(북내면 봉천리, 2003년 6월 11일)

2) 실 것 마련(1)

(1) 삼 껍질 벗기기(그림 6)

찌낸 삼은 식기 전에 운반하여 뜨거울 때 벗겨야 잘 벗겨진다. 삼껍질("피삼"이라고 한다) 벗기기는 삼식("실 것"이라고 한다) 마련의 첫 단계이며 삼대가 말라 버리면 벗기기가 힘들 뿐더러 좋은 '실 것'을 마련할 수 없기 때문에 "송장 옷목에 두고 삼껍질 빗긴다"는 말이 있다. 이 일은 단시일에 마쳐야 하므로 주로 여성들이 품앗이로 한다.

(2) 말리기

찢은 껍질은 햇볕에 잘 널어서 말린다. 장마가 들거나 제대로 말리지 못하면 섞거나 상해서 좋은 품질을 얻을 수가 없다. 요즘은 고추 따리는 보일러실에서 한다. 일단 이 작업이 끝나면 두었다가 시간이

나는 데로 한다.

(3) 삼머리²⁰⁾ 추리기

물에 추긴 후 같은 크기끼리 선별하고 머리를 나란히 맞추어 묶는 작업이다.

(4) 삼머리 쪼기

삼머리를 추리고 '삼머리 도프기'를 쉽게 하기 위해서 미리 삼머리 쪽을 돌맹이나 다른 연장으로 으깨는 과정이다. 이 때는 물에 담갔다가 한다.

(5) 삼머리 도프기

삼머리를 실처럼 가늘게 만들기 위한 전 단계이다. 물을 추기면서 엄지손가락에 적당한 양의 삼을 감고 삼머리를 나무판대기 위에다 얹어 놓고 삼뿔²¹⁾으로 굵어내고 말린다.

(6) 삼 째기

도픈 삼을 물에 불리면서 삼머리를 가늘게 쪼개는 과정이다. 이때 머리부분이 반대부분과 섞이지 않도록 머리부분끼리 한 줌 정도씩 가지런히 맞춰 묶어둔다.

(7) 말리기

가늘게 쪼갠 삼을 햇볕에 바짝 말린다. 삼일을 할 때는 물에 여러 차례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삼일은 물로 끝난다"고도 한다.

(8) 삼 삼기(그림 7)

실을 길게 이어가는 과정이다. 말린 것을 한 묶음씩 불에 적신 다음 편지에 걸쳐놓고 한 올씩 뽑아 이어간다. 이 때는 대바구니나 대야 등 얇고 넓은 그릇에 실이 엉키지 않게 살살 사리면서 넣는다.

(9) 물레질, 물레жат기 : 도뱅이 만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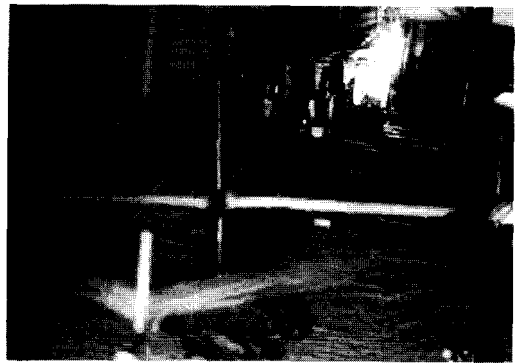
삼은 실을 물레를 돌리면서 실타래를 만들어내는 데 이를 "도뱅이"라고 한다.

(10) 돌곳(갓)에 올리기(그림 8)



〈그림 7〉 삼잇기.

(경백면 용산1구 다동, 2003년 12월 12일)



〈그림 8〉 돌곳(갓)에 올리기.

(경백면 용산1구 다동, 2003년 12월 12일)

"돌곳 질" 또는 "실 올리기"라고 한다.

도뱅이에 감긴 실을 네귀둥이에 지주를 박은 곳에 실을 걸어 돌려가면서 쪼는다.

(11) 삼 띄우기 : 탈색

삼껍질의 누런 부분을 탈색하는 과정이다. "삼 뽕 털어 낸다, 젓불에 재운다, 익힌다"라고도 했다. 젓불 거리는 콩깍지나 쪼 등을 태운 재를 사용하였는데 요즘은 양젓물로 한다. 겨울에는 불을 땀 아랫목에 4-5일 동안 두고, 여름에는 햇볕에 노출시켜 두기도 한다.

(12) 행구기

실타래가 다 띄워지면 꺼내서 재와 껍질에 붙은

20) "삼머리"란 삼의 밑둥 부분을 말하며 굵다.

21) 삼뿔은 손잡이는 손아귀에 넣을 수 있을 만한 굵기에 ㄷ字 모양의 쇠 낫을 박은 것이다.

불순분이 떨어져 나가도록 맑은 불에 흔들면서 행군다. 잿물기가 빠져나갈 때까지 여러 번 행구고 말리기를 4-5일 정도 계속한다.

(13) 바래기

남아있는 잿기를 없애면서 누런 것을 하얗게 하기 위함이다. 낮에 햇볕에 널어 바래고, 밤에는 물에 담기를 5-6회 계속한다.

(14) 색 내기

여러 차례 바래는 과정을 거치면서 푸석하고 허약해 된 실에 윤기와 강도를 주기 위함이다. 색내기는 두 번 한다.

첫 번째 색내기 때는 쌀뜨물을 미리 항아리에 모아둔다. 여기에 실타래를 폭 담갔다가 말리는데 이때 바짝 말리지 않는다. 실 윤이 풀려야 하기 때문에 꾸둑꾸둑 할 때 돌이 잡아서 실을 던 다음, 막대기에 걸어서 말린다. 마르면 다시 뜨물에 담그는데 3~4회 반복한다.

두 번째 색내기 때는 쌀뜨물에 쌀겨를 풀어 실에 골고루 적신다. 2~3일 담가 두면 처음보다 차분하게 윤이 든다. 실털기를 처음 방법처럼 한다. 색내는 것은 치자나 활흙을 쓰기도 한다. 치자를 쌀뜨물에 담갔다가 하거나, 노란 흙(黄土)을 파다가 쌀뜨물과 같이 섞어서 하기도 하는데 이런 흙은 귀하다.

(15) 말리기

색이 든 것은 골고루 벌을 썬면서 잘 말려야 한다. 색이 고르지 않거나 실이 약해지기 때문이다.

(16) 돌 것 내리기 : 바대기 만들기

“실 것 내리기”라고도 한다. 베틀에 올려 지 실을 마련하는 마지막 짚김 작업이다. 엉키지 않도록 살살 사리면서 “바대기”를 만든다. 이것은 실을 날 때 날줄의 길이를 가름하는 척도가 되며 시장에서 근으로 달아 판다.

3) 실 것 마련 (2)

(1) 꾸리감기

베를 지 때 ‘북’에 낱을 씨실저리를 마련하는 일이

다. 꾸리 감을 도구는 가는 대[細竹]나 수수깡을 이용하는데 이를 “속대”라고 한다.

(2) 베(실)날기

베틀에 걸 낱실을 마련하는 마지막 과정이다. 고무래·날들·진들·발뚝 등 많은 연장이 필요하다. 여럿이 해야 하므로 품앗이로 한다.

길이와 승수를 정하여 바대기 10개를 열 개의 날들 구멍마다 넣고, 말뚝을 왔다갔다하면서 실을 감는다. 참새·털새·개새로 세 개의 새 쫓기 과정이 있는데 늦거나 되지(바트면) 않도록 고르고 평평하게 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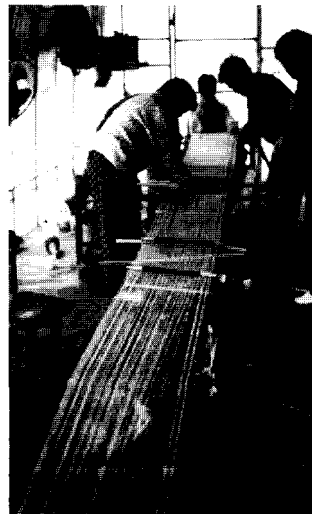
(3) 바디깨기

바디구멍에 낱실을 꿰는 일이다. 한 구멍에 10올씩 썬다. 지금은 바디를 한꺼번에 4개씩 한다.

(4) 베 매기(그림 9)

낱실을 매는 과정으로 베틀에 올리기 전 가장 마지막 작업이다. 불과 풀 외에 도투바리·끄성계·괘댕이·술 등 많은 도구가 동원된다.

불은 숯불을 마련하고 밑에는 왕거를 깔아 불이 세거나 꺼지지 않도록 조절한다. 지금은 전기로 한다. 풀은 보리나 밀가루로 하는데 된장을 섞는다. 이



〈그림 9〉 베매기. (미려면 용정3리 살래, 2003년 12월 13일)

때 치자나 찰흙을 풀에 개어 색내기를 한다.

베 뻤 때는 베 메는 기술과 일손이 맞아야 하며 4~5명이 있어야 한다. 품앗이도 하지만 샅을 주고 사 람을 데려다 한다. 공임은 지금은 3~40,000원씩 한다.

(5) 틀에 올리기(임애걸기)

4) 베 짜기

틀에 올린 베를 잔다.

5) 마무리 손질

잔 실은 틀에서 내려 물에 하루종일 된장기와 풀기가 빠지도록 담가 둔다. 불순물이 빠져나가도록 흔들면서 행군 다음 건져내어 적당히 말린다. “마를 때까지 손에서 끝낸다”는 말이 있다. 꾸득꾸득 말랐을 때 두 사람이 양쪽에서 마주 잡아 당기면서 울을 바르게 한 다음 개어서 방망이로 살짝 두드리고 흥 두께에 올려 구김을 편다.

안동포나 황지포는 이 때 표백하고 노란색(치자)을 들이는데 “상괴낸다”고 한다.

4. 판매 및 유통현황

1) 거래상황

현재 보성장에서 거래되고 있다(그림 10). 삼[麻]시장은 어둔 새벽에 시작하여 9시쯤이면 끝난다. 삼과 실겉(바대기)(그림 11)·삼베가 거래된다. 삼은 대부분 장 전날에 중매인과 거래되고, 당일은 실수요자들이 사간다. 현재 보성장에서 거래되는 삼베는



〈그림 10〉 보성장(삼베시장).
(2003년 12월 17일)



〈그림 11〉 바대기달기:보성삼베시장.
(2003년 12월 17일)

씨와 날을 중국산 삼실로 잔 중국삼베와, 씨와 날을 국산과 섞어 잔 혼방품이다. 이것들은 국산과 구별하기가 어렵다. 중국에서 들어오는 형태는 처음에는 베로 사오다가 차츰 실 것이 들어오고, 베를 도투마리에 얹어 짜기만 하면 되도록 하는 것까지 들어오고 있다. 전삼베는 12만원에서부터 18만원까지 다양한데 시장에 나오면 값을 제대로 주지 않기 때문에 직거래로 이루어지고 있다.

2) 생산물에 따른 소득비교

보성삼베는 원삼[麻皮]·삼실·삼베·수의·생활한복·기타 생활용품으로 거래되고 있다.

(1) 원삼

원삼을 팔 경우는 대마를 1단보(300평)에 심었을 때 원삼 180kg(300근)이 생산된다. 값은 현재 10근 한 달림에 75,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보성에서 삼거래하는 장길동과 이병렬씨에 의하면 “주로 남해 사람들이 6~7월에 사 가는데 고운 것만 골라 간다. 그래서 남해베가 좋다”고 한다. 삼을 사 가는 일을 “삼치러 온다”고 한다.

(2) 실 가공품

실을 가공했을 때는 300평에 같고 원삼을 마련하

면 90kg(150근)이 나온다. 값은 최근 3년간 근당 평균 30,000원이었는데, 현재 40,000원짜 받고 있다. 현재 중국에서 鞣皮가 인천으로 로프나 다른 용도로 허가 받고 수입된 것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 가격은 國產(보성산)은 한 달림에 60,000~90,000원인데, 중국산은 20,000원이다.

(3) 삼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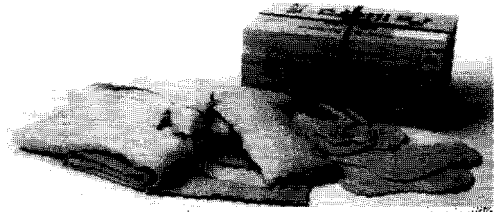
300평에 나오는 원삼을 가공하면 실은 90kg이 나오고, 삼베는 60필이 생산된다.

삼베는 녀새나 녀새두번걸이를 가장 많이 짜는데, 가격은 2003년 말 현재 1필 20자(1자 길이 60cm, 폭 36.5cm)에 200,000원이다. 이것은 주로 수의나 이불거리로 나간다. 닷새는 250,000원, 엷새는 350,000원이며 좋은 수의나 생활한복감으로 쓰인다. 천연염색을 하여 팔기도 한다. 이 지방은 '쪽물'이 유명하다. 보성군 벌교읍 고읍리의 한광식²²⁾외에 많은 전문연구자들이 있다. 가격은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삼베 한 필 공전이 300,000원이며, 다른 염색은 200,000원 정도 한다.

(4) 가공품

주로 수의와 생활한복 및 생활용품을 만들어 팔고 있다.

옥평의 윤창순 외에 여러 분이 수의와 한복을 만들어 판매하고 있다. 한복은 주로 생활한복이다. 수의는 7.5~8필 드는데 주로 녀새두번걸이에서 닷새 짜리로 한다. 보성베는 1필이 20자인데 시중에서는 17~18자가 통용되고 있기 때문에 잘못 사다가 마르면 옷감이 모자란다. 수의 가격은 일습에 2,500,000원 정도이며, 재봉틀로 박는 것만도 이를 걸린다. 일습 공전은 100,000원이다. 남자 수의는 18가지로 도포(두루마기, 행의)·겹저고리·겹바지·속적삼·중우·복건(겹)·겹버선·베개·명목(겹)·과두(겹)·약수·천금(겹)·지묘(겹)·오냥 등이다. 여자수의는 16가지로 원삼(두루마기)·겹저고리·속적삼·겹치



(그림 12) 보성삼베 수의.

마(7폭)·겹바지·여모 등이며, 버선 이하는 남자와 같다.(그림 12)

III. 맺는 말

현재 우리 나라 삼베 수요는 보성삼베만이 아니라 우리 나라 전역에 대한 문제이다. 다행히도 근래에 와서 삼베는 '壽衣'용으로 쓰이면서 좋은 흐름을 타고 있다. 이는 1970년대 이후 도로공사나 주택단지 마련 등 개발사업 중에 糞을 옮기는 과정에서 屍身과 함께 썩지 않은 비단옷을 보고 삼베수의를 선호하게 되면서 더 관심을 갖게 되면서이다. 이런 결과는 막대한 물량의 低價로 들어온 중국산에 밀려 "衣料의 植民化"라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그러나 생산공정이 어렵고 생산기술자의 老齡化로 생산량이 부족하여 가격이 비싸고 또 粗惡하여 그 쓰임이 한정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다행히 품질은 판명되면서 서서히 국산에 대한 재계의 기회가 옴을 시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삼베생산에 대해 장애가 되는 또 하나의 요인은 1975년 裁培가 허가제가 되면서 재배를 기피하고 있으며, 까다로운 대마관리법(1976년 4월 7일 법률 제2895호)개정²³⁾과 악이용자들의 행패, 가정의례준칙에 의한 관혼상제 간소화로 喪服수요의 감소, 노동력 부족과 인건비 상

22) (사)대동문화연구회, "하늘빛 아름다움 - 쪽물들이기," 계간 大東文化(2001), pp. 133-134.

23) 한국 대마관련법령에는 대마재배허가, 대마 잎 처리규제 등에 따른 제약이 있다.

간후리면 "대마 재배자는 그 현황을 시장, 관수,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종자와 뿌리 및 성숙한 줄기물 제외하고는 이를 소각 배물하고 결과를 시장, 관수,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대마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소지, 수수, 운반, 보관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대마의 잎을 대마초로 간주하여 대마관리법에 따라 시군 보건소의 허가를 받고 제배해야 한다." 등이다.

슴 등이 큰 장애거리로 나타나고 있다.

보성삼베는 안동포에 비해 투박하지만, 질기고 통기성이 좋아서 선호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지역 스스로가 가져 보성삼베의 생산을 근절함과 동시에 생산기술 전승을 위한 기능인 양성, 고품질 향상, 지역마다 다른尺數와 단위 통일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한편 전통직으로 수의는 비단으로 하는 관습을 僞德商人들에 의해 거친 삼베로 하게 된 모순도 크게 지적되어야 할 사항이다. 삼베는 죄인의 옷으로 상복으로, 여금용 勞動服에 쓰였다.

무공해자연섬유를 갈망하고 있다. 화학섬유 남용으로 인한 公害의 심각성과 함께 人體에 미치는 피해는 인류에게 주어진 과제의 해결책은 친환경소재의 연구이다. 의료용 및 실용품으로 개발하면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衣類만이 아니라 의약품 연구 등에 대한 연구도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차후 과제는 현행 삼베제베에 대한 생산상황을 우리 나라 전 지역과 이에 따른 품질별로 그 특징을 찾아내고, 國産과 輸入産(中國)의 품질과 가격 등을 비교 분석하는 일이다. “衣料植民化”의 결과에 대한 문제점을 규명하는 준비단계가 될 것이다. 또한 오랜 역사를 지닌 한국 삼베의 명성을 찾기 위한 작업이 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山陽誌』影印本(壬寅本)
『朝鮮襄興勝覽』
- 김경철 (2001). “보성강유역의 선사문화.” 계간 大東文化 20호.
- (사)대동문화연구회 (2001). “하늘빛 아름다움 - 쪽물 들이기.” 계간 大東文化 20호.
- 보성군 (2000). 보성통계연보 제40회. 보성군.
- 보성군 (2002). 보성통계연보 제42회. 보성군.
- 보성군 농산과(2002). 문서 51222-10007. 보성군.
- 보성군 농산과(2002). 문서 51221-13049. 보성군.
- 보성군 농산과(2003). 문서 5. 보성군.
- 寶城郡史編纂委員會 (1995). 寶城郡史. 寶城郡史編纂委員會.
- 송봉석 (2001). “보성의 특산명물.” 계간 大東文化 20호.
- 이찬식 (2002). “보성대마(삼베) 활성화방안.” 보성군 보고사항.
- 医療大麻老をえる會 (1999). *Japan Medical Marijuana Association Vol. 1.*
- 赤星榮志 (2000). *ヘンプがわかる55の質問 ~ヘンプ(大麻)の基礎知識~.* 日本麻協會.
- 공정거래위원회. (2003년 10월[2003년 10월29일 검색]). “자료실-심결자료”;<http://www.ftc.go.kr/>

<부록> 자료 제보자 인적사항

(2003년 2~12월말 현재)

구분	이름	성별	생년월일	현주소	비고
1	장길동	남	1937년생	북내면 용전리 사평	삼거래 27새부터
2	안정식	여	1938년생	북내면 임봉리 봉천	수의제작 및 삼[麻]일
3	이찬식	남	1944년생	북내면 유정리 옥평	보성삼배항 대표
4	임남순	여	1946년생	북내면 봉천리 당촌	수의제작 및 삼[麻]일
5	윤창숙	여	1948년생	북내면 유정리 옥평	수의 및 한복제작
6	안유남	여	1924년생	검백면 용산1구 다동	삼[麻]일
7	양제화	여	1931년생	검백면 용산1구 다동	삼[麻]일
8	김상점	여	1932년생	검백면 용산1구 다동	삼[麻]일
9	김현남	여	1939년생	검백면 용산1구 다동	삼[麻]일
10	손영례	여	1935년생	미력면 용정3리 살래	삼[麻]일
11	전정자	여	1944년생	미력면 용정3리 살래	삼[麻]일
12	김선자	여	1945년생	미력면 용정3리 살래	삼[麻]일
13	송금자	여	1949년생	미력면 용정3리 살래	농사, 삼제배
14	윤재주	남	1930년생	율어면 금천리 광천	삼[麻]일
15	선순덕	여	1937년생	율어면 금천리 광천	삼[麻]일
16	염규순	여	1948년생	노동면 명봉리 봉동	삼[麻]일
17	이병렬	남	1931년생	광주시	3대물림, 삼일 장사
18	김막순	여	1918년생	경남 남해군 고현면 대사리	삼[麻]일
19	정점미	여	1950년생	경남 남해군 고현면 대사리	삼[麻]일